

스티로폼 업계 '더존 스티로폼'

월부터 판매

THE ZONE

조합 단체표준인증제품

'더존 스티로폼' 개발

스티로폼업계가 공동상표인 '더존 스티로폼'을 2004년 7월 1일부터 출시한다. 한국스티로폼공업협동조합(이사장 성영배)은 변화하는 시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공동상표인 '더존 스티로폼'을 개발하여 오는 2006년까지 단열재 시장 점유율 80% 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2008년에는 중국, 인도 등 해외 진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더존 스티로폼'은 조합이 생활환경시험연구소의 협조를 얻어 제정한 단체표준에 따라 개발된 것으로, 열전도율이 기존 KS 기준보다 향상된 것이 특징이다.

모래, 목재, 합판, 벽돌 등을 대체 할 수 있는 친환경자재

조합은 2003년 12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6조 규정 및 중소기업공동상표지원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1997-14호)에 의해 공동상표 개발 정부지원 자금을 받아 '더존 스티로폼'을 개발하였으며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와 이익을 위해 조합 홈페이지(www.epsjohap.or.kr)에 열관류율 자동계산 site를 개발하여 소비자가 이를 이용하여 기존단열재 사용두께 보다 30% 정도 낮출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스티로폼은 화재 시 목재보다 유해가스가 적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화재피해의 주범으로 왜곡되는 등 스티로폼에 대한 소비자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제품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세계 각국의 광물자원과 목재자원의 가격이 상승되는 반면 경제개발로 인한 건축자재의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스티로폼은 모래, 목재, 합판, 벽돌 등을 대체 할 수 있는 친환경자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합은 2004년도 말까지 10억원의 추가 예산을 투입하여 공동상표에 주력하게 되었다.

더존 스티로폼은 GNP 2만불 시대의 새로운 표준

스티로폼은 우수한 단열재이나 화재에 취약하다고 왜곡되어 왔다. 지난 30년간 국내 건설시장의 자율기능에 의해 전국의 모든 건물에 사용되었어도 건물화재 발생은 일본에 비하여 인구 10만 명당 1건, 사망자는 건물화재 1만 건당 1명의 차이이다. 일본과의 지리적,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불평탄한 화재위험성에 대한 안전성 이론의 수정이 필요하다. 스티로폼 업계가 실험실이 아닌 실제상황에서 축적된 화재위험성과 이론적으로 규명하여 새로운 표준을 만들 경우, 스티로폼은 시멘트, 모래 등의 대체재가 필요 없는 건축재료로서 기존 전체에 노하우를 제공하여 GNP 2만불 달성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